

서울대 사람들

이 날 치 소리꾼



SNU
MAGAZINE
VOL. 63



〈자리를 지키는 것들의 상〉, 2019, 석기토, 가변설치, 최원정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공예전공 학사 졸업)

세상을 향하는 협력의 힘

더 좋은 세상을 향하는 관문에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따뜻한 시선과 공동체를 보듬는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협력의 가치를 일깨우는 서울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4 - 07

커버스토리

세계에 흥 내려온다
서울대의 흥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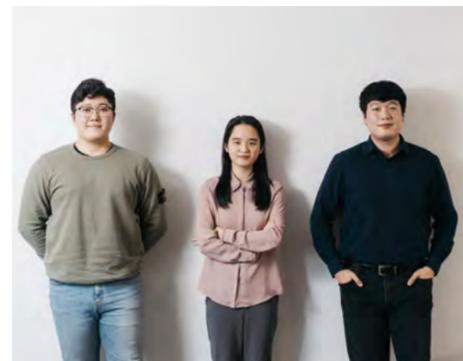


자신이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니
'누군가'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08 - 19

서울대 구성원의 이야기

서울리뷰오브북스(SRB)
어썸레이
서울대학교 의료봉사동아리 CaSA
평창캠퍼스 거문금당사랑봉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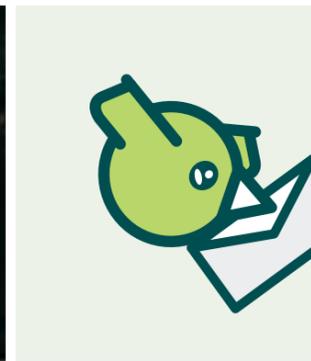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매개로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나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 - 27

학교의 이야기

스누새편지
캠퍼스 소식
연구 노트
SNU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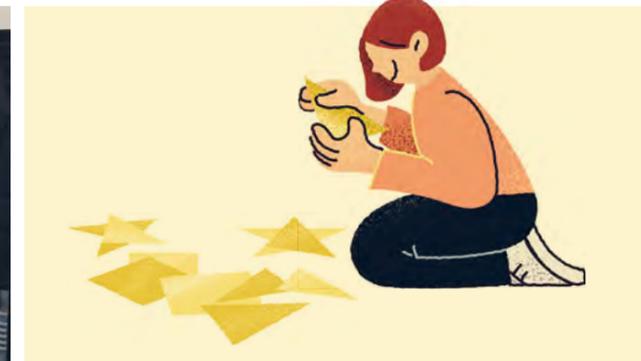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사회에 힘을 보탠
서울대 학생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28 - 40

나눔의 이야기

기부는 사람이다
기부와 나
마음을 잇는 이야기
발전기금 뉴스



많은 분이 후원이라는 빛이 멀리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날치
소리꾼

국악과 동문

권송희

신유진

안이호

이나래

세계에 흥 내려온다 서울대의 흥이 내려온다



이날치는 판소리와 대중음악 사이에서
절묘한 지점을 찾은 얼터너티브 팝
밴드다. 그들은 판소리 수궁가의
한 대목을 활용한 <범 내려온다>를
통해 누적 조회수 5억 뷰를 돌파하며
전 세계에 국악의 매력을 제대로
각인시켰다. 21세기의 판소리,
K-흥으로 불리는 이날치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했던 국악과 팝의
절묘하고도 아름다운 세계가 담겨 있다.
'조선의 아이돌'인 이날치가 만들어내는
흥겨운 세계에 절로 어깨가 들썩거렸다.

이날치는 2018년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라곤 킹>에서 만난 장영규 감독의 제안으로 결성된 밴드다. 베이스에 장영규와 정중엽, 드럼을 치는 이철희와 서울대 국악과 출신 4명의 소리꾼 안이호, 권송희, 이나래, 신유진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치는 19세기에 활동한 이경숙 명창이 줄타기하던 젊은 시절 날치같이 날쌔게 줄을 잘 탄다고 해서 얻은 예명이다. 그의 소리는 나팔소리처럼 또렷했고 새소리와 똑같았다고 전해진다. 밴드를 결성하며 이름이 필요했는데, 싱싱한 날치의 느낌이 좋고 추구하는 음악인 '얼티머티브 팝'과도 잘 맞아 '이날치'로 정하게 됐다. "팝인데 팝 같지 않은 팝을 말해요. 대안적인 팝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거창하게 대안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잘하는 걸로 팝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거죠."(안이호)



권송희, 안이호, 이나래, 신유진

그들이 잘하는 국악으로 팝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는 바람이 통했을까. 이날치와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가 함께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의 누적 조회 수가 5억뷰를 넘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 편 홍보 영상에 나온 음악인 <범 내려온다>는 '1일 1범' 신드롬을 만들며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국악 열풍으로 만들었다. 열광한 대중은 이날치에게 '조선의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붙여 그들의 음악에 화답했다. "국악이라는 장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날치를 시작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관심을 보면 국악의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해요."(신유진)



Feel the Rhythm of KOREA: ANDONG

국악의 흥겨움이 차르르르 쏟아지다

이날치는 작년 5월 1집 <수궁가>를 발매했다. 수궁가는 이날치와 인연이 깊은 판소리다. 극단 여행자의 양정웅 연출과 장영규 음악감독이 모여 만든 작품인 <드라곤 킹>의 모티브가 수궁가였고, <드라곤 킹>에서 만난 멤버들이 지금의 이날치로 모이게 됐다. "현존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동물이 나오면서 풍자가 있고 판타지스러운 게 수궁가라고 생각했어요.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판소리는 아무래도 인물에 갇히게 되는데, 수궁가는 동물 세상에 인간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죠."(권송희) 이날치는 '춤출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는 음악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들으면 어깨가 들썩거리는 음악. 간주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의도일 터. 이날치는 가히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춤출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

"판소리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왜 댄스음악처럼 만들고 싶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제 생각은 저는 소리할 때 즐겁거든요. 소리꾼이 소리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국악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젊은 소리꾼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춤출 수 있는 음악을 만들자고 했던 장영규 음악감독님의 방향성이 반가웠어요."(이나래) 젊은 소리꾼이 모였기에 국악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안타까운 부분이 또 있었다. "국악에 춤을, 국악에 무엇을. 유난히 국악이 인격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없이 음악이 존재할 수 없는데, 애써 음악에 인격을 부여해서 이해하기보다 음악 하는 사람을 보면 문제가 훨씬 간단할 것 같아요."(안이호)

학교에서 수집한 영감의 조각들

이날치의 젊은 소리꾼들에게는 '국악'을 제외하고도 공통된 기억이 있다. 드넓은 서울대 캠퍼스와 그 너머로 펼쳐지는 관악산의 장엄한 능선과 같은 풍경들. 아름다운 학교에서의 추억은 그들의 예술 세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바탕이 되었다. "마당극 동아리 '마당패 탈'을 했어요. 서울대 재학 시절 제게 가장 영향을 끼친 활동이었는데, 늘 국악 하는 친구들과 생활하다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배운 시간이었어요."(이나래) 안이호는 재학 시절을 떠올리면 동아리 외에도 돌아가신 오용록 교수님이 떠오른다고 했다. 새벽까지 연습하고 나와도 늘 교수님의 연구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과감하게 모르겠노라며 다음 주까지 공부해오겠다던 교수님, 그에게 오 교수님은 가르침 그 자체였다. "저는 판소리를 가르쳐주는 동아리 '추임새'와 기타를 배우는 동아리 '기타동동'에서 활동하면서 음악 전공자가 아닌데도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을 보며 많이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신유진) 권송희는 서울대 국악과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타 전공의 좋은 강의를 들으며 국악 외에도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경험을 꼽았다. "서울대에서 안이호를 만나서 이날치까지 하게 됐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사계절이 아름답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권송희)

사회에서 똑똑하고 깊게 생각하는 서울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동문이라는 자부심도 들고, 저도 저들처럼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



Feel the Rhythm of KOREA: SEOUL

항상 깨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

이날치의 네 명의 소리꾼은 서울대를 다니며 본인이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많은 혜택을 누렸기에 서울대 학생들이 항상 혜택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했다. "공연하면서 내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됐다고 느끼면서 이제야 누려왔던 것에 책임을 다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럽다기보다 나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안이호) 졸업 후 사회에 나와서 동문을 만나면 느끼는 바가 남다르다고 했다. "사회에서 똑똑하고 깊게 생각하는 서울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동문이라는 데 자부심이 들기도 하고, 저도 저들처럼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어요."(이나래) 선배로서 후배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은 특히 작년 신입생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달랐다. 신입생의 아픔담고 소중한 시절을 집 안에서 생활하며 희생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희생으로 자신들이 제한적으로나마 공연하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기에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힘든 시간이 언젠가는 지나갈 거니까 우울하지 않게 저희 음악을 스트리밍해주셔도 좋고, 그 안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어요."(신유진)



박훈 동양사학과 교수
홍성욱 생명과학부 교수
강예린 건축학과 교수

대한민국에 서평지 서울리뷰오브북스(SRB)가 탄생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는 단순히 서평만을 실은 서평지가 아니다. 불을 쉽게 옮겨붙게 하기 위해 먼저 태우는 불쏘시개처럼,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만든 편집위원들은 이 서평지가 우리 사회에 지적 대화의 불쏘시개가 되길 바랐다. 한 편의 서평은 누군가의 가슴속에 불을 지펴 한 권의 책을 생명체로 바꾸어버린다. 이를 시작으로 더 많은 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은 깊이 있는 사회의 토대가 된다.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만든 편집위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에 지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지적 대화의 불쏘시개를 만들다

안녕하세요. 서울리뷰오브북스(SRB) 창간준비호(0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기획을 결과물로 만들어 내신 교수님들께 소감을 여쭙습니다.

홍성욱: 정말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강예린: 사실 신기한 게 제일 컸습니다. 제가 늘 하던 일과 너무 다른데 저질렀으니까 계속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훈: 저도 신기했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왔구나, 하면서 신기했습니다.

교수님들의 언어로 서울리뷰오브북스를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향점과 내용을 담은 서평지인지요.

홍성욱: 서울리뷰오브북스는 전문 서평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평만 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책에 대해 논하는 잡지입니다.

강예린: 일종의 지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해에 책이 5만 종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우연히 좋은 책을 만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좋은 책을 소개해주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박훈: 인생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 사람이 연애도 하고 여행도 하지요.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를 책과 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SRB)

영상으로 보기



뉴욕리뷰오브북스(NRB)와 런던리뷰오브북스(LRB)가 서울리뷰오브북스의 모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에서만 볼 수 있는 강점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강예린: 상대적으로 어떤 게 강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런던과 뉴욕을 서울과 비교했을 때 책 문화의 저변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문화의 깊이가 얕아요. 그에 비해서 책은 또 많이 나오지요. 출판물로 따지자면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책이 많이 나오는데, 문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를 통해서 책에 궁금증을 갖기도 하고, 관련된 글을 써보기도 하면서 책과 관련한 여러 형식의 것을 해보는 태도를 기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의 텀블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시간 만에 목표금액을 채웠고, 당일에만 후원된 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하죠. 여러 출판사에서 만류한 것과 달리 서평지에 관심 있는 독자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훈: 오랜 시간 연구자로 살아와서 시장이나 대중과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서울리뷰오브북스의 텀블벅 과정을 직접 보면서 많은 용기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독자의 호응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텀블벅 반응을 보고 난 후로 편집위원들도 용기를 많이 얻고 잘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긴장감도 얻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의 편집장님이신 홍성욱 교수님께서도 독서를 "고독하고 서늘할 정도의 개인적 침잠인 동시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뜨겁게 손을 잡는 활동"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홍성욱: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읽은 책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갈망도 있지요. 요즘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이 잘 되는 까닭도 다른 사람과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가만히 보면 독서라는 게 혼자 책을 읽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공동체를 키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의 큰 지향점은 결국 '지적인 대화의 계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지적인 대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박훈: 예전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한국 사회가 더 큰 존경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류 문화도 그렇고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일도, 경제성장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 사회에 지적인 깊이가 있는지에 달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적인 깊이의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매개로 우리 사회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의 편집부에서 서평을 고르고 소개하는 기준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강예린: 아주 정확하게 정립은 안 되었습니다. 큰 기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읽고 싶은 분의 글을 신는 것 같습니다. 제 정서로 이야기하자면 서울리뷰오브북스가 '옛날 도서관' 같이 느껴집니다. 초기 도서관은 글을 쓰고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해 기능했다고 생각해요. 그 도서관에 가야만 특정한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플랫폼에서 저희가 읽고 싶은 글이 실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0호를 발간하셨는데요. 0호에 대한 독자의 피드백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박훈: 사실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독자의 반응이 제일 민감하면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0호가 나오자마자 편집위원 선생님들과 발견되는 리뷰를 전부 공유했습니다. 기억나는 리뷰가 있긴 한데, 활자화되기 어려운 수준의 악평이라서요. (웃음) 이후로 이어지는 리뷰에서는 다행히 좋은 평이 많았습니다. 물론 좋은 말만 해주는 주례사평 같은 리뷰도 있었지만, 상당한 지적 수준의 평이 많아서 저희도 개발되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의 기획부터 0호 창간, 창간호인 1호 준비까지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홍성욱: 저희가 교수들이니까 책을 많이 내는데, 저희는 주로 출판사에 원고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일은 없었지요. 제작 과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서울리뷰오브북스를 제작했습니다. 책을 만

드는 과정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편집위원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협력하면서 서평지를 만드시는 만큼 교수님들께 협력하는 자세를 여쭙습니다.

강예린: 서울리뷰오브북스를 함께 만들게 된 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연구보다는 디자인과 설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책의 세계가 계속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를 만들면서 여러 전공 선생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협력보다는 배움의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박훈: 보통 세상에서는 교수끼리 만나면 자기주장만 해서 협력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리뷰오브북스의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모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도 매너를 잘 지킵니다. (웃음) 주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데 격렬한 토론이 오가도 금방 협력적인 태도로 전환되는 걸 보면서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훌륭한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욱: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오래 가진 게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 초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오래 토론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를 많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려도 인간적인 대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3월 발간 예정인 창간호 준비로 한창 바쁠 것 같습니다. 0호에서는 '코로나19'를 주된 키워드로 삼으셨다면, 창간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홍성욱: 창간호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이슈는 '안전'입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추구해야 하는 바이지만, 또 안전을 추구하기만 하면 많은 제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안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서평은 책을 읽고 싶게 만들고, 책을 심장이 뛰는 생명체로 바꾸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서울리뷰오브북스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홍성욱: 10년 동안 꾸준히 발행하는 게 저희의 소박한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좋은 글을 담은 잡지를 내면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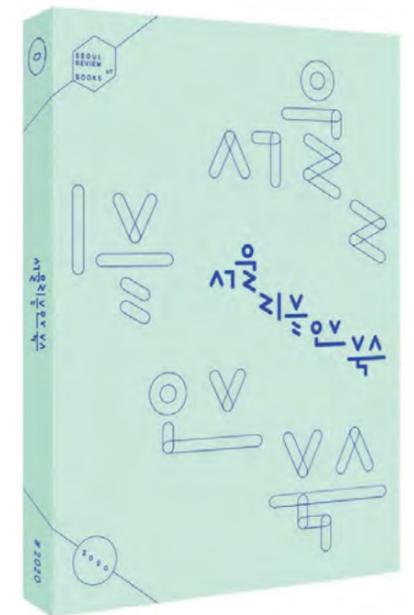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쩌면 책을 가까이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책과 서평에 관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박훈: 책은 사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에게도 욕심내서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목차나 대강의 내용을 본 다음에 꽃아놓으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일단 사야겠죠. (웃음) 일단 꽃아 놓으면 다른 지적인 작업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그때 그 책을 집어서 읽는 거죠. 그럼 책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강예린: 원래도 서평을 좋아해서 자주 읽었는데요. 서평을 읽을 때마다 늘 깨닫는 게 서평을 읽으면 책을 읽고 싶어지는 연쇄가 일어나요. 서평이 주는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이 느끼길 바랍니다.

홍성욱: 0호에 실린 김혼비 작가의 짧은 글에 "책에 머리를 꽂아서 인생이 바뀐다"는 표현도 있는데요. 서울리뷰오브북스가 독자의 머리에 꽂아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들었다 놓는 자리 이동 정도는 경험하게 하는 책이 됐으면 더 바랄 바가 없을 것 같아요.

*텀블벅: 국내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중 하나로 예술, 문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어 켜 레 이

재 료 공 학 부 김 세 훈 동 문

재 료 공 학 부 정 근 수 동 문

응 용 화 학 부 권 정 우 동 문

재 료 공 학 부 최 흥 수 동 문

aweXome Ray



엑스레이는 1세기가 넘도록 영상의학에서 활용되며 많은 인류의 의료 검진을 도왔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어썬레이는 엑스레이의 큰 이점에 주목했고, 결국 스마트 환기장치의 핵심인 차세대 광원(EUV&X-ray)을 개발했다. 공기정화 장치에 쓰인 차세대 광원은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저감시킨다. 엑스레이로 세상을 이롭게, 더 ‘어썬하게’ 만들고 싶다는 어썬레이의 공동창업자 네 명을 만나 그들이 어떤 태도로 협력하며 일하는지 들었다.

또 다른 ‘어썬한’ 내일



어썬레이에서 개발한 엑스레이 튜브는 팔뚝만 한 크기의 기존 튜브보다 소형화돼 동전만 하다.

안녕하세요. 어썬레이(aweXome Ray)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어썬레이는 어떤 회사인가요?

김세훈: 안녕하세요. 어썬레이는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 환기장치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술회사입니다. 저희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는 공기살균정화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까지 없애는 공기정화가 가능한 이유는 장치의 핵심 부품인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광원(EUV&X-ray)을 개발했고, 그 광원의 핵심 소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레이(X-ray)를 쓰기 때문에 받는 오해도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세훈: 엑스레이 보다 약한 게 자외선(UV)이고, 그중 가장 강한 게 EUV(Extreme UV)인데요. 저희는 EUV부터, Soft X-ray 그리고 Hard X-ray까지 조절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필요한 전자기파를 사람에게 직접 쓰는 게

어 켜 레 이

아니라 차폐된 기기 내부에서만 사용해 전혀 유해하지 않아요.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 제품이 엑스레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는데, 회사 이름도 그렇고 엑스레이 회사로 알려지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엑스레이는 병원의 검사장비와 같이 인류를 돕는 방향으로만 쓰였어요. 엑스레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We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없애는 공기정화 장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인류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올 것이라 보시지요.

정근수: 코로나19처럼 전혀 없던 새로운 위협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기술로 새로운 위협에 잘 대처하면 좋겠지만, 이번 코로나19도 그러했듯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분야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이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는 하나의 톨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홍수: 저희가 개발하는 공기정화 기술의 관련 경쟁 제품에는 필터가 있는데, 필터는 폐기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 저희 제품은 세척 과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서 인류가 고민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썬레이가 환경부에서 선정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잖아요. 어썬레이를 창업한 후로 환경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부분도 있을까요?

김세훈: 사실 환경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환경문제는 에너지와 연결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 기술 베이스가 없는 환경회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이었는데, 저희 기술이 환경 분야에 기여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기술을 기반으로 환경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어요. 작년에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유망기업에 선정된 기업 중에 설립 3년 미만은 저희밖에 없었는데요. 기술기반으로 환경문제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썬레이는 네 분께서 공동 창업으로 만드신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훈 대표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은 무조건 공동 창업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세훈: 1년까지는 혼자 해도 돼요. 창업도 혼자하고, 시제품도 혼자 만들 수 있죠. 근데 회사가 정말 잘 났을 때를 생각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을 열심히 다니다가 혼자 창업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 사람이 원래 제일 잘하던 일을 못하더라고요.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조금만 멀리 봐서 회사가 몇 단계 성장할 때만 봐도 공동 창업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썬레이에서 함께 하신 지 햇수로 3년이 되셨지요. 네 분께 공동 창업자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여쭙습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권정우: 1인 창업은 외롭죠. 근데 공동 창업은 또 각자의 입장 차이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입장은 늘 다르기 때문에 조율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공동 창업의 대부분이 지인이에요. 공동 창업자의 능력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꼭 계약서를 쓰세요. (웃음)

정근수: 각자 서로의 전문성을 키워왔으니까 의견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상대방의 역량과 판단을 이해할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최홍수: 어떤 점에서 결혼 후에 부딪히는 문제의 종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생각했던 상대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느껴지는 당황스러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과 공동창업을 한 건 제 선택이니까 그 선택을 꾸준히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의견 조율 과정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공동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궁금합니다. 역시 의견 조율인가요?

권정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분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엔 아는 사람에게 쌓여있던 믿음과 일이 더해지면서 굉장한 시너지가 나죠. 근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 섭섭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체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정근수: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웃음) 특히 공동 창업 이후에 선택의 무게감이 달라졌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전체 조직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크죠. 부담감을 이기는 방법은 제 선택을 믿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세훈: 회사가 커지니까 네 명이 해도 괜찮던 일이 벽차기 시작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게 되고 조직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스러워지죠. 그때 시니어에게 자문해요. 그렇게 얻은 간접경험을 회사에 전하고요.

어썬레이처럼 스타트업에서 시니어를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썬레이에서 시니어와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세훈: 분석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에서 이론만 있는 사람과 기술전문가의 명확한 차이를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기술전문가가 없으면 6년 만에 제품이 나와요. 근데 그건 직접 하려고 해서 늦어진 거예요. 기술전문가가 했다면 1~2년이면 제품이 나왔을

거예요. 특히 제조업에서는 나이가 많은 시니어 기술전문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조직에서 시니어 기술전문가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권정우: 결국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썬레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인력이 고루 구성돼 있어요. 10대와 60대가 소통할 때 각자의 어려움이 있겠죠. 저희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 문제에 회사 차원에서 관심이 있고, 힘든 점은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회사에서 관심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 밖에도 어썬레이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협력할 수 있게 특별히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권정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밋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썬레이의 직원 30명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예요. 그리고 정말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면 각 팀에서 일어나는 업무 결과를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회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는 게 어썬레이의 뜻이죠.

정근수: 저희 팀은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회사의 경험치가 거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회사 안의 생활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체화하도록 신경 쓰고 있어요.

최홍수: 시니어분들은 저희 팀에 많이 계세요. 협력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시니어들이 말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린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었을 때가 더 많았어요. 10대와 60대를 두고 알아서 잘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두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두 세대의 생각을 이어주는 유희유 역할을 하는 게 어썬레이가 지닌 협력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썬레이의 인력 규모가 초기 8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썬레이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궁금합니다.

김세훈: 처음에 면접 보는데 “어썬레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 정말 안 끌려요. 오히려 “여기서 많이 배워서 나가고 싶다”는 답변이 맞다고 보죠. 페이팔(PayPal)에서 테슬라 같은 엄청난 회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썬레이 출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인드셋이 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어썬레이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신의 아이템으로 창업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초기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서울대에서 기술사업화 강의도 하고 계시지요. 기술 창업을 꿈꾸는 서울대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세훈: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결국은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만들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로 끌어올리는 각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디어가 실제로 사업화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면 훨씬 시야가 넓어지고 방향성이 생기죠.

보통 공대 출신들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기능이 하나씩 붙어서 결국에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사업화인데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술사업화 강의를 꾸준히 하는 이유도 그런 지점이예요. 근데 제가 언제까지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니 기술사업화 강의가 정식 과목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네 분께서 꿈꾸는 어썬레이의 미래를 대표로 소개해주세요.

김세훈: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바람으로는 엑스레이가 세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학교와 연구실에 있는 기술이 사업화되고 성공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어썬레이가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의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어썬레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마음 따뜻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다

서울대학교 의료봉사동아리 CASA

봉사의 가치에 공감하며 한데 모이다

1958년 창단된 카사는 가톨릭 학생회로, 서울대 의대의 유서 깊은 의료봉사동아리다. 카사는 라파엘클리닉이 시작된 1997년부터 매주 일요일 진료소를 열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진료 환경 개선에 노력해왔다. 그 밖에도 카사는 매해 여름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으로, 겨울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하며 의료 취약계층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의대 입학 전에 라파엘클리닉에서 봉사하면서 학업으로 바쁠 텐데도 주말에 봉사하러 나오는 선배들을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카사에서 봉사하면 저도 마음 따뜻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오게 됐어요.”(이운재) 카사에서 활동하며 봉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궁금했다. “그동안 간헐적인 봉사만 해왔는데 카사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면서 저의 작은 도움이 환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봉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됐죠.”(최연성) 카사에서는 다른 동아리에서 느낄 수 없는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도 했다. 대부분의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지만, 카사는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가 ‘봉사’라는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협력할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카사에는 여러 연령대와 성별, 의대 안에서도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봉사에 큰 가치를 느껴 이렇게 다양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정지호)

소외된 이웃에게 눈을 맞추는 의료인으로

모든 일상을 멈춘 코로나19는 카사의 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이전 카사의 단원은 바쁜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매주 진료에 시간적인 부담을 느꼈다면, 이후로는 봉사하지 못해 심적인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라파엘 클리닉에 오시는 매주 300~500명의 환자분, 여름에 만나던 지방의 환자분들, 필리핀 친구들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진료를 잘 받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요.”(최연성) 하지만 예비 의료인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기에 카사는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중단되기 전까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행했던 라파엘클리닉의 비대면 진료를 돕기도 했다. 또, 이 시기를 두 보 전진을 위한 배움의 시간으로 삼고자 의대 교수님과 함께 나눔 정신을 고양하는 세미나와 아카데미 영상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의료인이 되고 싶을까. “저는 유능한 의료인이 되고 싶어요. 많은 의학 지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환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카사에서 경험했어요. 환자의 마음과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진료하는 게 유능하다고 생각해요.”(이운재) 다양한 단원들과 봉사하며 세상을 향한 협력을 경험한 만큼, 협력에 대해 전하고 싶은 바가 있는지 물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확실히 예전보다 협력의 기회 자체가 희소해지고 귀중해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귀중한 협력의 경험이 찾아올 때 서울대 구성원만큼은 서로 긍정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하면 좋겠어요.”(정지호)

의학과 19학번 최연성
의학과 19학번 이운재
의학과 17학번 정지호





평창캠퍼스
거문금당사랑봉사회

재능기부로 밝히는 평창의 빛

평창캠퍼스 거문금당 사랑봉사회

꼭 필요한 곳에 기술재능기부를 실천하다

서울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1시간 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다. 거문금당사랑봉사회는 이곳 평창캠퍼스의 시설관리팀을 주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다. 2018년에 발대식을 가진 봉사회지만, 처음부터 봉사회의 골격을 갖췄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평창캠퍼스 직원이 동네로 내려가 밥을 먹다 그 가게의 전등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발견했다. 몇 명의 직원들이 다시 들러서 가게의 전등을 수리해주고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 지금의 거문금당사랑봉사회가 됐다. “다른 농촌 지역도 비슷할 텐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모두 오래됐어요. 전기, 난방, 소방의 문제로 조그맣게 계속 불이 나요. 우리가 한 번씩 점검만 해드려도 지역 주민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자발적으로 한두 명씩 모이면서 봉사회 회원은 50명이 넘었다. 그동안 여러 집에 찾아가 편의를 해결해준 덕에 거문금당사랑봉사회를 향한 지역 주민의 호응은 대단하다. 사랑받는 봉사회의 비결은 ‘꼭 필요한 곳에 실천하는 봉사’. 그들은 지역의 이장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안전 점검을 하고 노후화된 형광등을 LED 등으로 교체해줬다. 소화기가 필요한 집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주고, 작년엔 유독 습한 날씨로 힘들어하는 가구에 제습기를 사서 전하기도 했다. “농촌이다 보니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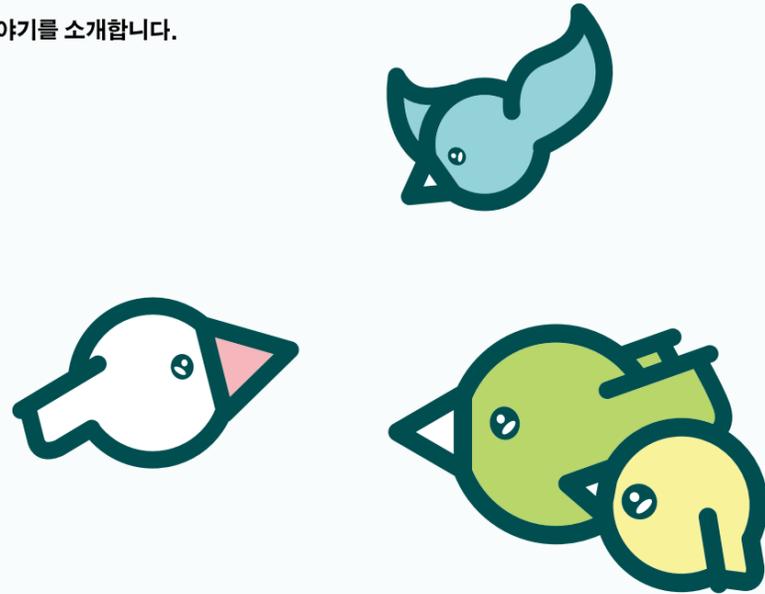
기술의 벽은 허물어지고 동료애는 깊어진다

거문금당사랑봉사회의 단원들에게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지역주민과 기억에 남는 일이 없는지 물었다. 전기공사를 하러 방문한 집의 고추밭에 비료를 뿌린 일, 등을 교체하러 갔다가 감자를 캔 일 등, 이야기에서 지역 주민과의 친밀함이 느껴졌다. “산 중턱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특히 전기, 소방 쪽에서 열악했죠. 저희의 기술로 그 집에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거문금당사랑봉사회는 주로 전기팀, 소방팀, 기계팀에서 두 명 정도 팀을 이뤄 봉사를 나간다. 봉사를 나간 팀원의 업무는 캠퍼스에 남아있는 다른 팀원이 도맡아 해결하는 식이다. “캠퍼스에서는 다른 팀과 함께 일하는 업무가 없어요. 그런데 봉사회로 나가면 팀의 구분이 사라지고 그냥 거문금당사랑봉사회죠. 자기 기술의 벽이 허물어지고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봉사할 때 제 자리를 채워주는 다른 동료에게 고맙죠.” 봉사회에 봉사하는 어려움은 없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현물을 전달할 때 느끼는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마을회관에서 많은 어르신이 끼니를 해결하세요. 마을회관에 더 많은 쌀과 간식을 전해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재정적인 한계가 있죠.” 봉사회는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재능기부보다는 지역 주민과 평창캠퍼스 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평창캠퍼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캠퍼스와도 함께 협력해서 봉사하는 시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경석이의 부산행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 침투해 당연하다 여겼던 많은 것을 파괴해버린
코로나19. 그 혼돈의 소용돌이에서도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위기의 순간
이타심을 발휘한 일상의 영웅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체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작지만 큰 힘을 보탠 서울대 학생, 경석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대구·경북 지역에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던 작년 2월이 기억나시나요? 벌써 일 년 전의 이야기가 됐네요. 당시 연일 이어진 뉴스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센



불길처럼 퍼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뉴스를 접한 사범대 지리교육과 배경석 학생은 남다른 죄책감을 느꼈대요. 뉴스에서 의료인력이 탈진한 모습을 보니까 경석 학생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고 그날을 반추했어요. 원래 경석 학생은 보육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봉사활동도 못하고, 개강도 연기되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길로 바로 대구·경북 지역 보건소 사무 곳에 인력이 필요하면 달려가겠노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환자들로 대구·경북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보건소에서는 의료인력이 아닌 봉사자까지 뺄길 겨를은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 경석 학생의 간절한 마음이 한 보건소 관계자에게 닿아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접했어요. 경석 학생의 부모님은 걱정이 없었을까요?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경석 학생의 깊은 마음에 부모님도 설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경석 학생의 부산행이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서울대)에서 태어난 스누새입니다.

시모양 부리가 달린 귀여운 o형 몸매가 매력. c자 날개로 캠퍼스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서울대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서울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랑받고 있는 스누새편지 모음은 bird.snu.a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 두 장과 바꾼 것

경석 학생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해운대구청으로 뛰어 갔어요.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구청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명부를 작성하고 방역 구호 물품을 정리하는 일이었대요. 그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인이 참 많았대요. 경석 학생을 향해 펜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행패 부리는 사람으로 구청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경석 학생은 녹록지 않은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이 객기를 부렸는지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대요. 하지만 경석 학생의 소신까지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경석 학생은 해운대구청에서 일주일 동안 봉사했어요. 그 시간은 미디어로 접한 상황과 현실의 괴리를 제대로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대요. 일자리를 구하려 구청에 찾아오신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오셔서 경석 학생이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니, 어르신들이 한 장에 1,500원 짜리 마스크를 어떻게 매일 사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석 학생은 구청에서 봉사자를 위해 나누어준 자신의 마스크 두 장을 어르신들께 드렸어요. 이날 경석 학생은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나누러 갔더니 돌아온 곱절의 행복

경석 학생은 부산에서의 봉사를 마무리하고 안양 집으로 돌아 왔지만, 구청에서 만난 노부부의 잔상이 잊히지 않았대요. 마침 집 근처 안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 봉사자를 구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절묘했죠. 부산에서의 봉사가 또 다른 봉사를 낳은 거예요. 경석 학생은 그곳에서 천에 필터를 덧댄 대화용 마스크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경석 학생은 평소에도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문제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봉사하면서 내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봉사한다는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존감도 올라갔고요. 온기를 나눠주러 간 건데, 오히려 제가 받는 온기가 곱절로 컸어요." 경석 학생은 고등학생 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서울대 진학을 꿈꾸지 못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대요. 경석 학생의 말을 빌려 '과분한 삶을 사는 것'을 봉사로나마 갖고 싶다고 해요. 경석 학생의 따뜻한 진심을 알게 된 학교는 지난 개교기념식에서 경석 학생에게 봉사활동 특별상을 수여했어요.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용기 내 실천한 경석 학생! 스누새도 그 용기를 배우고 싶어요!



손안에서 거니는 서울대 도서관

중앙도서관 VR Tour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대 규모의 시설과 장서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지금까지는 드넓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모든 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서울대 중앙도서관 VR Tour 서비스를 서울대 도서관의 모든 곳을 자유로이 누빌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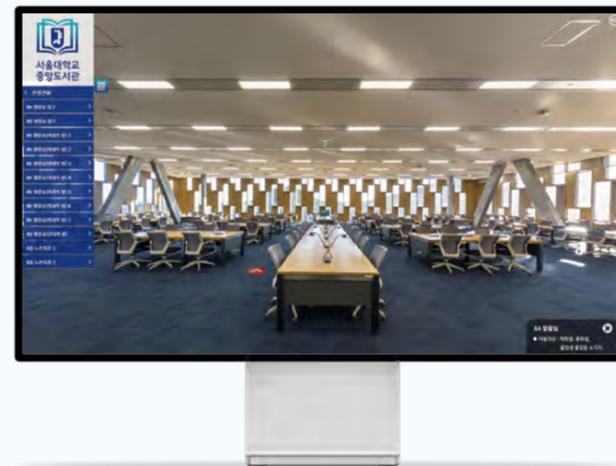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쾌적한 열람실은 물론, 영상 촬영 스튜디오, VR 체험존, 정보검색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VR Tour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을 잘 알게 되고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VR Tour가 지난 12월 1일 화요일에 공개됐다. VR Tour는 클릭 한 번으로 도서관 내·외부를 VR로 살필 수 있는 서비스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VR Tour 배너를 클릭하여 접속하거나 관장관 6층의 VR 체험존에서 이용할 수 있다. VR Tour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의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획되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에서도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VR Tour 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VR Tour 서비스를 기획한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이윤경 담당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생생한 도서관의 모습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라며 제작 의도를 전했다.



오래된 고서의 운곽과 손때까지

서울대 중앙도서관 VR Tour에서는 아름다운 서울대 도서관의 전경과 실내 곳곳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VR Tour를 켜자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서울대와 도서관의 전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몇 번의 클릭으로 중앙도서관의 드넓은 라운지, 중앙도서관의 서고, 햇살 가득한 관장관 열람실의 실내 등 도서관의 다양한 시설을 둘러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간을 살펴보는 것도 가능했다. 교수 전용시설인 패컬티 라운지, 고문헌 자료실 등 궁금했으나, 평소에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없던 곳까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가상공간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고서의 운곽과 손때까지 감상할 수 있어 마치 직접 고문헌 자료실을 거니는 듯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유진희 주무관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는 쾌적한 열람실은 물론, 영상 촬영 스튜디오, VR 체험존, 정보검색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니, VR Tour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관 시설을 잘 알게 되고 도서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했다.

이용자를 생각한 편리한 시스템

VR Tour는 VR 영상을 통해 이용자가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구조와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됐다. 시설에 접속하면 시설 이용에 관한 음성 안내가 흘러나오는데 대출/반납 서비스, 태블릿 PC 대여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설명을 준비한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자료검색 방법이나 시설이용 안내에 관해서는 영상 클립을 준비해 이용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도서관 이용 시설에 관한 영문 설명을 준비해 외국인 이용자가 쉽게 VR Tour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VR 영상 하단에는 화살표를 띄워 화면 속에서 이동이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용자가 수월히 공간을 이동할 수 있게 화면 우측과 좌측에 플로어 맵(Floor Map)과 층별 안내가 제공되도록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지성의 요람인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VR Tour를 통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도서관 공간과 도서관 서비스를 편리하게 체험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센서 하나만 이용하는 악력증강 로봇장갑

안주는 교수와 조규진 교수는 단일 센서를 이용한 악력증강 로봇장갑을 개발했다. 5개의 팔 근육에 5개의 센서를 부착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손목 부근에 근전도 센서 1개를 부착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동안 안정적인 의도 파악이 어려워 실용화가 불투명했던 착용형(Wearable) 로봇의 실용화가 조금 더 앞당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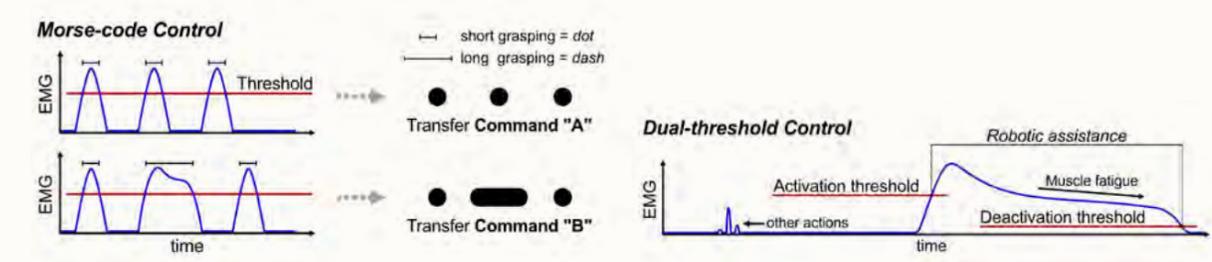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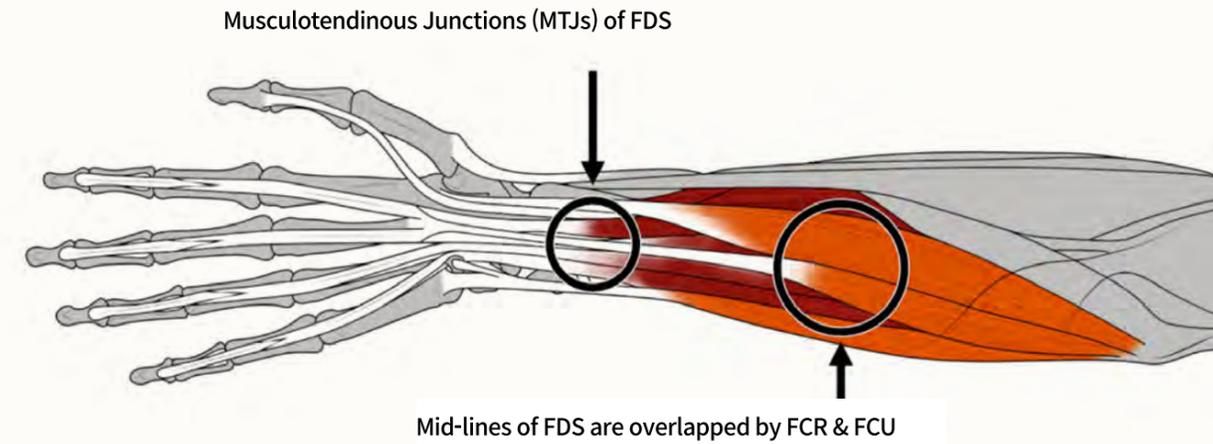
체육교육과 안주는 교수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

사람의 운동을 보조하기 위한 많은 장비가 개발되고 있지만 모든 시제품이 양산되어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보조 효과가 있더라도 사용자별로 맞춤 설계를 해야 한다면 생산에 큰 비용이 들고 높아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소비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며 결국 양산은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는 보조장비에 “지능”을 부여해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순간에 보조해주는 착용형(Wearable) 로봇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의도 파악을 위해 많은 센서가 필요하고 그 센서의 위치는 사람마다 다른 몸의 크기와 형상 때문에 확실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여러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착용형 로봇을 실용화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동작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가령 단 하나의 센서만을 이용해서 보조가 필요한 동작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제작의 용이성과 양산 가능성은 현저히 커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많은 움직임은 보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보조가 필요한 동작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센서의 수를 줄이기 위한 첫 단계이다. 사람의 근육은 힘을 생성하기 직전 근전도

라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 신호를 이용하여 동작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은 이미 의수 및 의족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계학습을 통해 그 효율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근육과 동작은 일대일 대응을 이루지 않는다. 한가지 동작을 위해 여러 근육이 이용되고 하나의 근육이 여러 동작에 이용된다. 즉, 아무리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조가 필요한 한가지 동작만 도와주고자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접근 방법으로는 센서의 개수를 단 하나로 줄이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2018년 가을, 체육교육과, 기계공학부, 의류학과 학생들이 수강한 “스포츠공학 실험”의 기말과제 수행 중, 몇몇 학생들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망치나 드릴, 톱 같은 공구를 다루어야 할 때 필요한 악력을 증강시켜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악력을 내고자 할 때만 예상치 못한 신체 부위를 통해 매우 큰 근전도 신호가 포착됨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큰 힘을 내고자 할 때는 해당 근육에서 큰 근전도 신호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는 모두 근육 바로 위 피부에 근전도 센서를 부착하여 진행해 왔다. 하지만 악력은 전완 근육을 통해 생성됨에도 근육이 거의 없는, 손목 안쪽에 위치한 천지굴곡근



의 힘줄-근육 접합부에서 악력 생성 시 큰 근전도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또한 놀랍게도 이 부분의 근전도 신호는 물체를 쥐는 동작 외에 다른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는 전완 근육에 아무리 많은 힘을 주어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말과제를 수행했던 학생들은 이 현상을 이용하여 인간중심 소프트웨어 연구센터의 연구진들과 함께 하나의 센서만으로 물건을 단단히 쥐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곧바로 악력을 증가시켜주는 로봇장갑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손목 부근에 근전도 센서 하나만 부착하여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5개의 팔 근육에 5개의 센서를 부착하여 악력 증강 의도를 파악하는 기존의 방법보다도 더욱 정확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자세와 상관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의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손목 안쪽에서 포착하는 근전도 신호를 모스 부호로 로봇에게 전달하는 제어 방법도 고안했다. 이를 이용하면 물건을 단단히 쥐려는 순간에만 보조하는 직관적인 조작 외에도 증강된 악력을 임의의 기간 동안 손에 힘을 주지 않고도 유지하는 등 다양한 조작이 가능하다.

연구는 언제나 배움의 과정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중요한 세

가지를 새삼 깨닫는다. 첫째, 인체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잘 알수록 더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공학 기술을 통한 신체기능 증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의 병목은 기술보다 인체운동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융합이 필요하다. 운동학적 실험,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로봇제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의 융합이 미래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한 이 연구를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수업과 연구는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수업은 다양한 학생들에게 연구에 필요한 지식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동료들과 함께 협업할 기회를 주고 연구자와 학생들은 모두 연구를 통해 늘 새로운 것을 배운다.



‘웹어워드코리아 2020’ 교육부문 통합대상 수상

서울대학교 홈페이지가 국내 최고 권위의 웹 평가상인 ‘웹어워드코리아 2020’ 교육부문 통합대상을 수상했다. ‘웹어워드코리아 2020’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고 인터

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과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등에서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선정·시상하는 행사다. 통합대상은 ‘웹어워드코리아 2020’의 교육부문 중에서도 최고의 상으로 꼽힌다. 작년 3월 전면 개편한 서울대 대표 홈페이지(국문 www.snu.ac.kr·영문 en.snu.ac.kr)는 특히 서울대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메인 영상과 편의성을 높인 일관된 레이아웃, 새로운 사용자 경험의 트렌드를 제시한 좌측 내비게이션 바가 ‘웹어워드코리아 2020’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는 “서울대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나눔의 콘텐츠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면서 “대표 홈페이지는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더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WEB AWARD
20 INNOVATOR

팬데믹 시대의 사회공헌, ‘디지털 SNU공헌단’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설립 이후 방학마다 ‘SNU공헌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 오던 ‘SNU공헌단’의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공헌단은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SNU공헌단’이라는 새로운 봉사를 기획했다. 2020년 여름방학 동안 진행된 ‘2020 하계 디지털 SNU공헌단’은 영상 콘텐츠 제작팀, 장애인 지원팀, 온라인 캠페인팀, 온라인 수학여행 콘텐츠 제작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의 소통 영상 제작팀의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활동했다.

경북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성공적으로 마친 ‘하계 디지털 SNU공헌단’에 힘입어 글로벌사회공헌단은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으로 세상을 향한 협력과 봉사 정신을 이어갔

다. 지난 ‘동계 디지털 SNU공헌단’은 울릉중학교와 협력해 서울 VR탐방, ‘함께’ 영상 제작과 영상 제작 발표회라는 총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울릉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서울대 단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사회공헌단은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디지털 SNU공헌단’을 기획하는 기획 단계부터 고민이 많았다. 대면 활동으로 진행하던 모든 회의를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뉴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참신하고 놀라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형태의 봉사를 만들어 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 봉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글로벌사회공헌단의 활동은 디지털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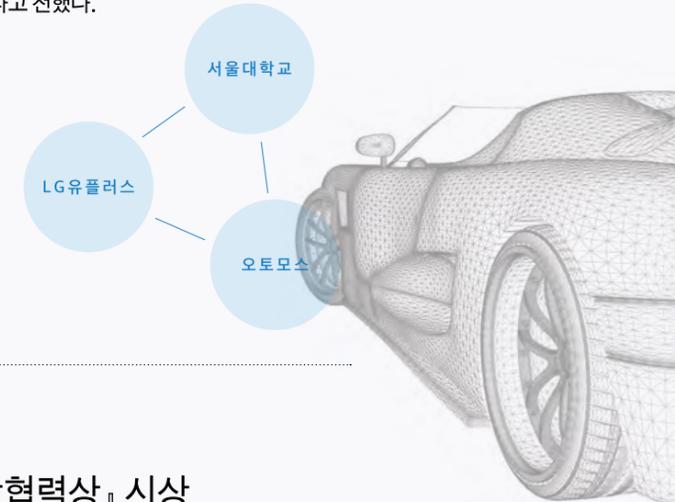
시흥캠퍼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수행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에 육·해·공 미래모빌리티 연구동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고, 2019년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되어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투자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기반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과 자율주행시험장을 건설하여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는 (주)LG유플러스, (주)오토모스와 함께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으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서울대 컨소시엄 간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학교는 자율자동차 운행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흥시와 지역 교통사업자들의 이해와 도움으로 작년 10월부터 4호선·수인분당선 오이도역에서 배곧신도시 주거 지역에 이르는 1개 목적지를 대상으로 4대의 셔틀 자동차로 수요응답형 심야 안전귀가 셔틀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오이도역과 배곧 신도시를 오고 가는 대중교통의 짧은 운행 시간과 긴 배차간격으로 불

편을 겪어왔으며 이 서비스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한 시민들은 “앞으로 이런 편리한 시대가 최대한 빨리 우리 앞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심야에도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라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범사업 책임자인 이경수 교수는 “자율주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환경 실도로 자율주행의 기술검증과 체감형 서비스 모델을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국 지자체와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제1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상』 시상

서울대학교는 2020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상을 제정해 탁월한 실적을 낸 교수 3명을 제1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상은 서울대학교가 창출한 기술을 산업부문으로 이전하고 사업화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교원을 포

상하여, 구성원의 산학협력 의욕을 높이고자 제정되었다. 시상식은 1월 25일(월)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수상자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문	수상자	공적사항
산학공동연구개발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철 교수	‘서울대-삼성전자 산학협력 사업단’, ‘서울대-호전실업 의류스마트팩토리 연구단’, ‘서울대-일진전기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센터’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정준호 교수	항 간세포 성장 인자 항체 개발, 키메라 항원 수용체 발현 T 세포 치료제 (CAR-T) 개발 원천기술, C5 보체 중화 항체, 퇴행성신경질환 항체 치료제 개발 후 산업체 이전
지역산업발전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이기원 교수	(주)밥스누 창업해 고부가가치 식물유래바이오제품 기술사업화, 대학유유와 평창약초 설립해 평창 지역 단위 6차산업 혁신모델 구축, 확산과 융합기술사업화 센터인 XO센터 설립

기부는 사람이다

발전기금 30주년 특집 3

서울대학교의 공식모금기관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서울대학교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30년간 발전기금에 아름다운 가치를 전해준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살펴본다.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

1990년,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 설립되면서 서울대학교를 위한 본격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됐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40,000여 명의 후원자가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몸소 나눔을 실천해주었다. 그렇게 발전기금에는 30년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부자의 아름다운 나눔의 가치가 쌓여 갔다. 그중 30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발전기금에 귀한 뜻을 보낸 기부자도 있었다.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김선동 미래국제재단 이사장, 故 김정식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종섭 삼익약기·스펙코 그룹 회장, 류진 풍산 회장,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 손동준 동일기연 회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교육 회장, 신창재 교보그룹 회장, 故 유희진 박사, 윤대섭 성보화학 회장, 이부섭 동진씨미켄 회장, 故 정석규 신양문화재단 명예이사장, 故 조천식 동문, 최장영 코리아니켈 회장,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 분야의 리더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문의 선한 영향력이 발전기금에도 전해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학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깊이 공감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후원한 故 김철·이옥자 부부와 故 정영호·故 박양숙 부부, 故 변무관 변호사, 미래 후원자를 기른다는 마음으로 기부한 이용희 태광사 회장,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명예이사장의 기부도 이어졌다. (1990년 1월 1일~2020년 7월 31일 기준)

소중한 뜻을 정성스럽게 새기다

발전기금은 국가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후원자의 소중한 뜻이 서울대 곳곳에 정성스럽게 새겨지도록 지난 30년간 꾸준히 노력하며 예우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발전기금에 귀한 뜻을 전해준 기부자의 아름다운 관심과 애정을 기념하며 감사패를 전달하고, 후원자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자리인 특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하며 후원자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부로 서울대학교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 후원자의 이름이 서울대학교에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명예 헌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후원자의 건강과 편의를 살피기 위한 서울대병원 이용 편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발전기금은 지금까지의 서울대학교 발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온 3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코로나 시대 이후 서울대학교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이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듯, 발전기금도 대학 발전이 예산 확보에 달렸다는 생각으로 발전기금 재단 규모의 90배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같이 충분한 재정 확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전기금은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면밀히 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은 개발하고 강점은 특화해 서울대학교가 글로벌 TOP 10의 교육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와 인류에 이바지하도록 오늘도 서울대학교를 위한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수여식



기부자 초청 음악회

올바른 기부의 뜻을 세우다

박병주 대표(덕산종합건설 대표, 관사장학회 고문)

관사장학회로 이어지는 배움의 열의

덕산종합건설 박병주 대표는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전쟁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연달아 경험했다. 대한민국은 당시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부모님과 여섯 형제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건 다름 아닌 그 당시 선진국들의 도움이었고, 그 도움을 받판 삼아 그는 덕산종합건설을 세워 사업을 확장해나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밀려들었다.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다 보니, 배움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을 오래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해소할 길은 올바른 기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올바른 기부의 답은 언제나 장학 사업이라는 생각이었지요.” 뜻을 펼치기 위한 적절한 시기였을까. 박 대표는 우연히 관사장학회 이기례 회장과 연이 닿았다. 관악구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회장의 이웃집이었다. 관사장학회는 2016년 서울대와 서울대 학생들을 오래 지켜보고 그 뜻에 공감하는 관악구 주민들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돕기 위해 만든 장학회로, 서울대와 관악구가 상생하는 훌륭한 사례로 꼽힌다. 박 대표는 관사장학회의 뜻에 감명받아 선뜻 500만 원을 기부했다. 500만 원을 시작으로 그의 꾸준한 기부가 시작된 것. “처음 장학회 모임에 갔을 때 자리에 계신 300여 명의 교수님의 환대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환대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시작한 기부가 벌써 5년이 흘렀지요. 힘 닿는 데까지는 꾸준히 기부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다

2016년부터 5년간 약 5억 원을 기부한 박 대표에게 고민은 없었을까. “고민보다는 기부하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을 도와주다 보면, 그들이 양성하는 인재가 언젠가 인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박 대표는 2018년에 그가 후원한 외국인 유학생의 고향을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후원을 받은 학생은 그의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어떤 기부자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제가 후원한 학생들이 현지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제게 보답하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나라에서 좋은 후학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해주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급변하는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30년간 덕산건설을 이끌며 시대변화를 몸소 경험했던 그에게도 코로나19가 생경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다들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대를 이끌 인재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들입니다. 코로나19를 포함해 경제, 정치, 통일 등 기성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난제를 슬기롭고 창의적으로 풀어주리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쉽게 얻은 것보다 힘들고 어렵게 배운 것일수록 깊고 높이 멀리 빛나는 법이라며 늘 배움에 힘쓸 것과 기부를 강조했다. “하나의 촛불이 여러 촛불을 밝혀도 빛은 줄지 않으니, 많은 분이 후원이라는 빛이 멀리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근히 감싸 안는 눈처럼

장학금 수기공모전 응모작 가운데 발췌

펄펄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앙상한 나뭇가지에 포근히 쌓인 어느 겨울날.
다시 싹을 틔우기 위해 앙상한 몸으로 겨울을 견디는 나무에도 하얀 옷이 생겼습니다.
앙상한 나무를 감싸는 포근한 눈처럼, 누군가의 시련과 절망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장학금.
눈 내리는 날의 포근한 풍경이 떠오르는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세상의 절반’에서 깨달은 것

입시 준비에 한창이던 고3 시절, 우연히 접한 짧은 문구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 아스파한.” 이 문구를 접한 후 무언가에 홀린 듯 페르시아 문명과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며 중동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전공을 공부하며 본격적으로 이란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이란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었고, 페르시아어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페르시아어를 제대로 공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페르시아어의 청해와 회화 공부를 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스스로 공부하기로 했지만, 생계 문제로 고단하신 부모님께 차마 손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졌을 때 세계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유라시아연구소 학술 기금’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대학교 중앙유라시아연구소에서 이슬람권으로 언어 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수요가 적은 이슬람권 국가는 정부 장학금, 교환 학생 등 현지에서 공부할 기회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 기금으로 저는 여름에 이란 이스파한 대학교에서 단기 페르시아어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파한에서 사진으로만 봤던 이맘 광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동의 기회는 얼굴도 모르는 한 기부자의 기금 덕뿐이라는 생각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에서 기회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이맘 광장에서 저도 누군가의 꿈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글. 장민국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성장의 발판이 되는

장학금

장학금 제도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사실 철렁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주어진 장학금의 가치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텔레마키아』라고도 불리는 호메르스의 서사시 『오뒷세이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아버지 오뒷세우스의 부재로 자식인 텔레마코스가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텔레마코스를 주인공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련은 자신의 성장을 도모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텔레마코스는 어려운 시기에 좋은 멘토도 만났습니다. 팔라스 아테나는 멘토라는 오뒷세우스의 친구로 모습을 바꾸고 나타나 그를 북돋아 주며 아버지의 빈 자리를 메워줍니다. 텔레마코스처럼 저도 시련을 좋은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텔레마코스가 되어 세상을 향해 원망을 토해낼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두색이라기엔 너무 자연스럽게, 초록색이라기엔 너무 어린 색깔을 가진 창밖의 나무를 보며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난 네가 겪는 이 시기가 저 나무의 색과 같다고 생각해. 아름답지 않니? 저런 색을 가진 나무가 화를 낸다는 게 상상이 가니?” 고단한 삶을 사신 어머니였지만, 제게 인생의 아름다움과 긍정을 말해주는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깊게 새기며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제가 받은 장학금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글. 권용석 경제학부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에게로

장학금에 대해 생각이 바뀐 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작년 서틀버스 안에서 만난 부산 사투리를 쓰는 학생은 전화통화를 하며 자신에게 수여된 향토장학금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들으며 장학금의 무용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얼마 되지 않은 시급인데도 고시 공부를 하는 동생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자원한 모교 학생을 보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을 보며 근로의 소중함과 장학금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성적 장학금이 사라진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도 생계의 문제로 공부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학생을 돕는 것이야말로 장학금의 취지와 맞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만났던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정직한 땀방울을 흘리는 학생에게 장학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바른 학생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글. 유미희 교내구성원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소식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 수상자 발표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대학신문사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제4회 서울대학교 장학금 수기공모전의 수상작이 결정됐다. 접수된 총 58편의 응모작 중 18편의 후보작을 결정하였다. 그 중 표현력과 독창성, 진정성, 활용도로 나누어 심사해 심사 점수에 따라 최우수상 1인, 우수상 2인, 장려상 4인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교수회관에서 3월 중에 열릴 계획이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최우수상	박현진	자유전공학부
우수상	조가영	약학과
	최진현	경영대학
장려상	박도영	영어교육과
	박제호	수학교육과
	정찬영	기계공학과
	송성윤	전기정보공학부

협약식 및 감사패 전달식

2020.11.03
김대용(수의학 81입) 수의과대학 교수
 김대용 수의대 병리학교실 기금 1억 원 약정

2020.11.03
고광호(약학 65입) 약학대학 명예교수
 약학대학 20동 건축 및 시설확충기금 3억 원 출연

2020.11.06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권오현 대학원생 생활비 장학금 10억 원 출연

2020.12.22
박병주 덕산에코빌 대표/관사장학회 고문
 사범대 관사장학기금 1억 원 출연

SNU President's Honor Club · 100억 원 이상 출연

김정식 전자공학과 48입	정석규 화학공학과 48입	유회진 기계설계학과 78입	이용희 태광사 회장	윤대섭 농공학과 49입
삼성	관정이종환교육재단	SK	LG	한화
NH농협은행	한국전력공사	웅진	포스코	KT
영원무역	신한금융	현대자동차	우리금융	부영
롯데장학재단				

50억 원 이상 출연

정영호 · 박양숙 생물학과 47입	조천식 정치학과 45입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 관악회	미래국제재단	현대
풍산	메가스터디	SK하이닉스	태영	동진세미켄
두산	금호아시아나	CJ	IBK기업은행	대림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	스펙오 · 삼익약기	한진	SPC	

SNU Gold Honor Club · 10억 원 이상 출연

홍성대 수학과 57입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입	이기영 의대 교수	김철 · 이옥자	손동준 전자공학과 59입
신창재 의학과 72입	변무관	최창영 금속공학과 64입	주중광 · 허지영 약학대학 60입 · 화학과 66입	원재연 경영학과 82입
박영희 수학교육과 54입	김연혁 히로세코리아 감사	유태용 토목공학과 50입	서정선 의학과 70입	전은기 · 김은희
박병준 섬유공학과 52입 · 홍정희	양두석 독어독문학과 69입	곽영필 토목공학과 56입	손장순 불어불문학과 54입	장미덕 국악과 장사훈 교수의 자녀
이순자 불어불문학과 57입	김명희 기약과 91입 김형찬의 모 · 신정희	박상운	김윤식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가정혜	박완서의 상속인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윤전수 · 이삼락	차상균 전기공학과 76입	이준용 경제학과 56입	백추현	이효상 · 이수욱 물리학과 66입 · 농화학과 74입
민계식 조선항공학과 61입	정윤환 일학과 56입	곽노섭 수학과 49입	신승일 화학과 57입	정덕균 전자공학과 77입
윤종용 전자공학과 62입	백형익 · 유근순	권오현 전기공학과 71입	강옥채	김정식 건축학과 54입
민선식 경제학과 78입	박정혜	송해봉 AFB,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20입	양윤홍 전자공학과 63입	이필남
정혁진 기계설계학과 73입	이현수 농화학과 60입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대우	카길애그리퓨리나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하나금융지주	현대산업개발	웅운장학회	동원
송원김영환장학재단	동양	KB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형애장학회
풍림무역	하나제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	대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일진	미래에셋대우	한국가스공사	네이버	현대중공업
녹십자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천재교육	TOYOTA MOTOR CORP.
생명보험협회	신풍제약	현송교육문화재단	신라문화장학재단	코스맥스
진양제약	한국수력원자력	쌍용양회공업	이연제약	환인제약주식회사
서울장학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방일영문화재단	세진에프알에스	DB김준기문화재단
한국프뢰벨	대우인터내셔널	아산사회복지재단	천만장학회	아모레퍼시픽
농심	무한투자	크로바상사주식회사	단암장학재단	STX

*금액 순

기금출연자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SNU Honor Club — 1억 원 이상 출연

강경선 (수외학과 82입)	김천홍	심재성 (前 성보산업 자문위원)	장용국 (법학과 71입)	히로나가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	문산토코리아	설편	포니정장학재단
강대희 (의학과 81입)	김철수 (법과대학 52입)	심창구 (제약학과 67입)	장재혁 (역사교육과 80입)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무림피앤피	아성다이얼스	포유먼
강신자 (간호학과 59입)	김철호 (외교학과 70입)	안영경 (前 헨디소프트 고문)	장정훈 (약학대학 65입)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미래와오전	아성아이치페피	풀무원
고광선 (토목공학과 57입)·양남주	김춘길 (화학생활공학부 58입)	안인희 (법과대학 민경춘의 모)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Peter S. Kim (MT 교수)	미래의동반자재단	안성농장	프리트바비오
고광우 (행정학과 53입)	김태유 (자원공학과 70입)	안창엽 (AMP 68기)	전병홍 (정책학과 동문의 부)	Stanley Choy	강스탤바이오펜	알앤베바이오	프리미어파트너스
고광호 (약학대학 명예교수)	김택수 (법학과 48입)	양윤근 (전자공학과 79입)	전상훈 (외교학과 78입)	강스안산업	민중사	애니비	피에이
고윤숙 (약학과 60입)	김하석·김영중 (화학과 63입·약학과 64입)	양전식	전용필 (경명대학 정인근의 모)	거광그룹	민호기 교수 유가족	에드이션	피델민초장학재단
고윤석 (물리학과 47입)	김하자 (사양화와故 하동철 교수의 부인)	양병윤 (외교학과 60입)	전익진 (지구환경과학부故 전재규의 부)	건일제약	비바패션	엘트벨민초장학재단	하이에어코리아
고재광 (지구과학교육과 동문의 부)	김학봉 (한영오업 회장)	연정은 (공예과 84입)	전해중 (동양사학과 47입)	건화철지니아어링	바이로매드	한국교육연수원 이수자일동	한국PDA
고정택 (외교학과 62입)	김현희 (간호학과 59입)	오경민 (경제학과 67입)·오선희 (독어독문학과 63입)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	에리트베이지	안지농장	한국SMC
고주 노홍희 (환경대학원 초대원장)	김현희 (간호학과 59입)	박승환의 배우자)	정달원 (고고미술사학과故 정은임의 부)	경남기업	방승문화진흥회	한국간연구재단	한국기래스
故 광명덕 변호사 유가족 (한자영·곽성현·곽성희)	김형주 (전자계산기공학과 78입)	오세경 (약학과 61입)	정병욱·이춘희 (독어독문학과故 정현수(03입)의 가족)	경알교육문화재단	법대 39회 동문 일동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곽성현 (前 글로벌리더십센터장)	김혜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수익 (기계공학과 63입)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경명82홀커밍데이	법대 84학번 동교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곽수근 (경영학과 73입)	김희백 (생물교육과 75입)	오승환 (의학과 56입)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욱의 부)	경제학과·무역학과 82입 동교회	법대 85학번 동교회	한국문화진흥회	한국문화진흥회
구범진 (동양사학과 87입)	김희천 (과학교육과 77입)	오용호 · 오양호 (행정학과 68입 · 법과대학 80입)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계수산업	법대최고지도자과정 10기 일동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
故 구영록 교수 유가족	나윤인	오윤덕 (행정학과 61입)	정재선 (소비자자동차과 93입)	고려아연	법대최고지도자과정 8기 일동	한국복합물류	한국복합물류
구영택 (자원공학과 85입)	나정환 (화학교육과 54입)	오치균 (사양학과 76입)	정재준 (前 경보전기 부회장)	골프존	법무법인 광장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구의일 (경제학과 61입)	남윤자 (의류학과 교수)	옥선화 (사정관리과 68입)	정중근	공영토건	법무법인 바쁜	한국알루미늄업	한국알루미늄업
구인환 (국어교육과 50입)	남정현 (건축학과 57입)	옥지준 가족 일동	정중수	과천시에향장학회	법무법인 바른	한국알루미늄업	한국알루미늄업
구재서 (식품영양학과 00입)	노영호 (토목공학과 61입)	우두현 (상학과 61입)	정지석 (약학과 60입)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법무법인 세종	한국알메이	한국알메이
권빈 (식품영양학과 00입)	노태원 (물리학과 76입)	우정규 (영어영문학과 33입)	정재문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생물교육과 58입) ·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오스텔임플란트	오스텔임플란트
권세일 (화학부 동문의 부)	류우종 (중어중문학과 53입)	유영훈 (공업화학과 94입) · 소영순 (영어교육과 교수)	김옥진 (생물교육과 58입)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법무법인 율촌	우덕재단	우덕재단
권숙일 (물리천문학부 54입)	미국철 (공업교육과 68입)	유성숙 (고고미술사학과故 김원용 교수의 부인)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관사장학회	법무법인 케이시엘	우이항철제들	우이항철제들
권순만 (경영학과 83입)	마드리실내악단 (단장 이순자)	유호선 (의류학과 70입)	조동성 (경영학과 67입)	관훈클럽산업연구기금	법무법인 태평양	운경재단	한국증권금융
권영덕 (약학과 56입)	마인경 (지리학과 56입)	윤계성 (상학과 64입)	조병연	광동제약	법무법인 화우	유치권교수기념사업 출판재단	유치권교수기념사업 출판재단
권영덕 (전기공학과 54입)	문학진 (회화과 49입)	윤덕우 (경제학과 58입)·최희자	조병직 (법학과 46입)	교보문고	법무법인 바른	유니베라	유니베라
권오현 (전기공학과 71입)	문효호 (조소과 92입)	윤석급 (웅진그룹 회장)	조성익 (EMBA 14입)	구원장학재단	법무법인 세종	오스텔메스티	오스텔메스티
권욱현 (전기공학과 62입)	문희성·박종식 (전기공학과 53입·가정교육과 54입)	윤석순 (수의학과 59입)	조석준 (행정학 57입)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일동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오스텔임플란트	오스텔임플란트
금장택 (종교학과 62입)	민현식 (국어교육과 73입)	윤세익 (경제학과 57입) · 강애삼	조영식 (수의학과 80입)	국방과학연구소	법무법인 대평양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건식 (법학과 73입)	박대근 (보건대학원 63입)	윤어순	조옥환 (부산교통 대표)	국영지연협 (최재원 정치학과 65입 · 김정숙 약학과 69입)	법무법인 화우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경국 (수의학과 86입)	박명호 (불어불문학과 52입)	윤우석 (에너지자원공학과 63입)	조중수 (건국대학교 교수)	국제종합물류	법무법인 바른	유니베라	유니베라
김경환 (법학과 62입)	박민식·박금옥 (수외과대학 65입·체육교육과 63입)	윤홍식·최재영	조한영 (상학과 43입)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법무법인 세종	오스텔임플란트	오스텔임플란트
김경환 (외교학과 62입)	박민철 (화학공학과 48입)	이건우 (기계공학과 74입)	조형준 (미학과 65입)	김 · 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광일 (경영학과 84입)	박병주 (덕신스태이트 회장)	이경식 (불어불문학과 55입)	조홍연 (FNP,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7기)	김영사	법무법인 케이시엘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구 (정치학과 58입)	박봉근 (수의학과 76입)	이경태 (경제학과 68입)	차상근 교수 외 제자 12명	김정수	법무법인 태평양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금순 (간호학과 68입)	박성현 (화학공학과 68입)	이광희 (지리학과 59입)	차영선	김정문일로에	법무법인 화우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기봉·신경은 (기계공학과 63입 · 화학과 65입)	박숙희 (지리학과 60입)	이교일 (기계공학과 60입)·박정민(불어불문학과 65입)	채성기 (원자핵공학과 59입)	까시마아	법무법인 세종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기태 (의학과 58입)	박영숙 (간호학과 65입)	이규철 (물리학과 55입)	채호석 (6대순)·채재한 (7대순)	나산산업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낙두 (약학과 53입)	박영준 (전기공학과 71입)	이국진 (경영학과 77입)	천문우 (약학과 61입)	남강장학회	법무법인 세종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난도 (소비자자동차부 교수)	박용욱 (사학과 55입)	이금기 (약학과 55입)	최경준 (법학과 79입)	남광토건	법무법인 세종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대욱 (조선공학과 76입)	박용현 (교육행정학과 53입)	이규필 (식물공학과 93입)	이기원 (제약학과 70입)	남영비바안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동길 (화학교육과 57입)	박용호 (수의학과 74입)	이기춘 (가정교육과 61입)	최근교 (중어중문학과 67입)	넥스코리아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동훈·이유미 (故 최응환의 가족)	차赫주(가정관리과 82입)·하상애·박일숙·박순영·박노홍	이내건 (경제학과 55입)·이홍자 (약학과 63입)	최덕순 (간호학과 59입)	노키아티엠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동훈 (회학과 48입) 외故 오정주 교수 가족	박종근 (전기공학과 69입)	이도영 (의학과 63입)	최만수 (기계공학과 76입)	농어총합발전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두철 (전자공학과 66입)	박중수 (수의학과 58입)	이만택 (외과대학 52입)	최명배 (금속공학과 71입)	농우바이오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민국 (약학과 47입)	박중오 (영어영문학과 55입)	이병선 (치과대학 62입)	최병선 (경제학부 교수)	다림넷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병기 (기니아트센터 학백)	박중호 (제약학과 67입)	이병현 (철학과 60입)·김귀현 (71학과 69입)	최병은 (AFB, 폐선산업 최고경영자 과정3기)	대교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병홍 (회화과 74입)	박준 (법학과 73입)	이문한 (수의학과 66입)	최스미 (간호학과 66입)	대동공업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상현 (사법학과 82입)	故 박진환 (농경제학과 48입)	이병준 (경제학과 55입)	최애욱 (간호학과 50입)	대림대학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상현 (영어영문학과 · 기계항공공학부 동문의 부)	박덕교 (화학부 79입)	이서 (기계공학과 80입)	최원갑 (섬유고분자공학과 55입)	대상문학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선동 (화학공학과 59입)	박태우 (건축학과 64입)	이성계 (농화학과 79입)·강선영	최은재 (축산학과 73입)	대아이엔씨 주식회사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선희 (정치) (국악과 60입)	박태진 (독어독문학과 80입)	이성규 (사학과 65입)	최재열 (조소과 최민주의 부)	대아이엔씨 주식회사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성배 (영어영문학과 63입)	박한재 (동양사학과 69입)	최정욱 (화학공학과 49입)	최정욱 (회화공학과 49입)	대양 E&C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성애 (한국콜마(주) 연구위원)	백옥자 (성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이순원 (가정교육과 54입)	최정운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영빌딩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수이 (경제학부 92입)	백중철 (농공학과 54입)	이순형 (가정관리학과 70입)	최종원 (경제학과 78입)	대우건설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수호·박경희 (금속공학과 70입·간호학과 71입)	법대 48회 졸업생	이신두 (물리학과 78입)	최창원 (심리학과 83입)	대우기전공업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순국 (의학과 60입)	변금옥 (치과대학 59입)	이영희 (김태원의 모)	최화형 외 3명	대우엔지니어링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신원 (응용화학과 64입)	변대규 (재어계측공학과 79입)	이예식 (약학과 46입)	추현술 (전기공학과 55입)	대우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양곤 (IFP, 미래지도자인문학과정 2기)	변성윤 (경제학과 91입)	이용한 (농업교육과 63입)	홍원자 (일학과故 홍완운의 부인)	대우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여순 (생물교육과 50입)	변주선 (영어교육과 60입)	이용한 (전기공학과 73입)	허영구 (무역학과 72입)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연택 (경제학과故 김정식 교수의 부)	서문자 (간호학과 63입)	이우영 (법과대학 94입)	한경구 (인류학과 74입)	대한사료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연호 (화학공학과 71입)	서용선 (미술대학 명예교수)	이원영 (AMP 67기)	한규범 (AMP 42기)	대한수의사회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경 (기계공학과 52입)·김천순	서정우 (디랩 대표)	이윤정 (간호학과 65입)	한규원 (기계공학과 68입)	대한유화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구 (치의학과 71입)	서진 (간호학과 56입)	이은방 (약학과 55입)	한기춘 (의학과 52입)	대한용문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석 (3 Plus Logistics 회장)	설학인 (섬유공학과 53입)	이은욱 (간호학과 59입)	한동현 (경영학과 85입)	더불어에너지파운데이션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수 (법학과 67입)	신낙인 (제26대 총장)	이익찬 (경영학과 86입)·이병서 (경영학과 66입)	한상복 (사회학과 56입)	덕산디오종합건설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수 (치과대학 명예교수)	손경식 (법학과 57입)	이장우 (제24대 총장)	한영우 (인문대학 명예교수)	덕산스태이트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숙 (기악과 48입)	손원준·송은빈 (경영학과 96입·심리학과 99입)	이재승 (원자핵공학과 59입)	한옥희 (회학과 79입)	덕산에코빌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심 (불어불문학과故 오현우 교수의 부인)	손주은 (사양사학과 81입)	이정섭	한창희 (회학과 79입)	데스코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업	손창조 (사화학과 71입)	이정섭 (종교학과 04입)	한창희 (회학과 79입)	도부라이프텍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영은 (토목공학과 62입)	송두명 (GLP, 글로벌리더십과정 24기)	이정섭 (물리학과 62입)	함정호 (법과대학 53입)	통합장학회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용구 (외교학과 56입)	송명철 (전기공학과 62입)	이희정 (법과대학 85입)	허성도 (중어중문학과 68입)	동방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용복 (농업교육과 동문의 부)	송미순 (간호학과 70입)	이찬수 (수학교육과 69입)	허기순 (가정교육과 46입)	동방상호신용금고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용재 (외과대학 60입)	송상홍 (화학과 55입)	이창택 (국어교육과 71입)	현재선 (농학과 44입)·주송기	동부대우전자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용철 (치의학과 55입)	송상현 (법학과 59입)	이창우 (경영학과 74입)	현정오 (농생물학과 66입)	동서식품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윤복 (약학과 64입)	송인철 (SPARC 14기)	이창화 (국어국문학과 64입)	현택환 (회학과 83입)	동아건설산업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은경 (법학과 교수)	송학민 (법학과 교수)	홍경자 (간호학과 62입)	홍경자 (간호학과 62입)	동아제약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의식 (의학과 60입)	신수정 (기악과 59입)	이철승 (법학과 78입)	홍계수 마리아 할머니 (법학과 72입 주경숙 동문의 가족)	중앙건설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의영 (경제학과 54입)	신영길 (계산통계학과 78입)	이철영 (SPARC 17기)	홍길표 (컴퓨터공학부 홍지영의 부)	동참문화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인주 (교육학과 53입)	신영주 (이념장 대표)	이평우 (불어불문학과 48입)·이예순	홍병각 (정치학과 55입)	동화산업장학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故 김인재·故 최성순 가족	신옥진 (부산공간화랑 대표)	故 이한빈 부총리 가족 (유정혜·이원식·이선이)	홍선근 (철학과 78입)	동화약품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재식 (사회학과 49입)·이영은	신익현 (법학과 79입)	이현재 (경제학과 48입)	홍성관 (사회사업학과 63입)	두울장학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정기 (약학대학 69입)	신재택 (최고경영자과정 48기)	이형도 (화학공학과 61입)	홍여선 (간호대학 명예교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정순 (의학과 60입)	신혜순 (가정학과 47입)	이형주 (농화학과 68입)	홍예표 (치의학과 65입)	로지스윌그룹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정희 (간호학과 52입)	신효영·신승연 (故 신광현 교수의 가족)	이홍보 (외과대학 58입)	홍정희	롯데관광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중원 (기계공학과 74입)	신희명 (물리교육과 49입)	임길진 교수 유가족	홍정희 (회화과 65입)	롯데쇼핑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중일 (재어계측공학과 79입)	신태일 (법학과 71입)	임동진 (법학과 62입)	홍지준 (화학교육과 74입)	메트비오테크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진수 (화학부 83입)	심계진 (천마문크리트공업 대표이사)	임현진 (사회학과 67입)	황기국 (제약학과故 황재호 교수의 부인)	메디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진향	심소일 (상학과 49입)	장세권 (농공학과 70입)	황재철 (상과대학 17회 입)	명진팜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김진희 (약학대학 55입)	심영근 (농업경제학과 49입)	장순영	황재홍 (치의학과 90입)	목암과학장학재단	법무법인 율촌	우익재단	우익재단

장용국 (법학과 71입)	장재혁 (역사교육과 80입)	히로나가 헤이스케 (하버드대 명예교수)	문산토코리아	설편	포니정장학재단
장정훈 (약학대학 65입)	전광영 (전광영아트센터 대표)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무림피앤피	미래와오전	포유먼
전병홍 (정책학과 동문의 부)	전상훈 (외교학과 78입)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미래의동반자재단	안성농장	프리트바비오
전용필 (경명대학 정인근의 모)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Peter S. Kim (MT 교수)	강스탤바이오펜	민중사	피에이
전익진 (지구환경과학부故 전재규의 부)	정달원 (고고미술사학과故 정은임의 부)	Stanley Choy	경알교육문화재단	민호기 교수 유가족	피델민초장학재단
전해중 (동양사학과 47입)	정병욱·이춘희 (독어독문학과故 정현수(03입)의 가족)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경명82홀커밍데이	건일제약	하이에어코리아
전희선 (연세푸른이비인후과 원장)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경제학과·무역학과 82입 동교회	건화철지니아어링	한국교육연수원 이수자일동
정달원 (고고미술사학과故 정은임의 부)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욱의 부)	Peter S. Kim (MT 교수)	계수산업	경기도인재개발원	한국무역협회
정병욱·이춘희 (독어독문학과故 정현수(03입)의 가족)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Stanley Choy	고려아연	경남기업	한국문화진흥회
정영섭 (인류학과 66입)	정재선 (소비자자동차과 93입)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골프존	경알교육문화재단	한국간연구재단
정영현 (공업화학과 정순욱의 부)	정중근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공영토건	경명82홀커밍데이	한국기래스
정인식 (경제학과 58입)	정중수	Peter S. Kim (MT 교수)	과천시에향장학회	경제학과·무역학과 82입 동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오윤덕 (행정학과 61입)	정지석 (약학과 60입)	Stanley Choy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계수산업	한국무역협회
오치균 (사양학과 76입)	정재문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생물교육과 58입) ·	Eduard J. Stadelmann (前 미네소타대학 교수)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3기 일동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문화진흥회
옥선화 (사정관리과 68입)	김옥진 (생물교육과 58입)	Ken-ichi Arai (동경대 교수)	과학기술혁신 최고전략과정 24기 일동	김영사	한국문화진흥회
옥지준 가족 일동	조경일 (약학대학 64입)	Peter S. Kim (MT 교수)	관사장학회	김정수	한국문화진흥회
우두현 (상학과 61입)	조동성 (경영학과 67입)	Stanley Choy	관훈클럽산업연구기금	김정문일로에	한국문화진흥회
우정규 (영어영문학과 33입)					

2020. 9. 1. ~ 2020. 11. 30.	약정	출연 단위: 원
장미덕 (국악과 장사훈 교수의 자녀)	1,784,160,000	1,784,160,000
권오현 (전기공학과 71입)	1,000,000,000	1,000,000,000
이준용 (경제학과 56입)	1,000,000,000	1,000,000,000
네이버	950,000,000	240,000,000
김석수 (자원공학과 73입)	898,500,000	898,500,000
삼성전자	850,000,000	850,000,000
소이산업	500,000,000	500,000,000
우덕재단	355,250,000	145,250,000
신풍제작		300,000,000
과광호 (약학대학 명예교수)	270,000,000	270,000,000
윤운장학재단	260,500,000	260,500,000
피피에스	250,000,000	50,000,000
김인수 (교육학과 53입)	200,000,000	200,000,000
신라문화장학재단	192,086,000	192,086,000
구원장학재단	175,200,000	175,200,000
아모레퍼시픽		105,000,000
김신원 (응용화학과 64입)	100,000,000	50,600,000
박민철 (화학공학과 48입)	100,000,000	100,000,000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100,000,000	100,000,000
박용욱 (사학과 55입)	100,000,000	100,000,000
번금옥 (치과대학 59졸)	100,000,000	100,000,000
우아한형제들		100,000,000
이내건 이홍자 (경제학과 55입)		100,000,000
창덕물류	100,000,000	100,000,000
함정호 (법과대학 53입)	100,000,000	100,000,000
더블유에이피파운데이션	90,420,000	90,420,000
중근당고촌재단	55,290,000	55,290,000
천만장학회	54,448,000	54,448,000
천재교육		51,790,000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50,000,000
서희건설	50,000,000	50,000,000
플라톤아카데미	50,000,000	50,000,000
황해근 (토목공학과 54입)	50,000,000	50,000,000
조영태 (보건학과 교수)	40,000,000	40,000,000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	40,000,000	40,000,000
포니정장학재단		40,000,000
AMP 89기	35,000,000	35,000,000
한재장학재단	33,600,000	33,600,000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30,000,000	30,000,000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20기일동	30,000,000	30,000,000
학봉장학회	30,000,000	30,000,000
임동진 (법학과 62입)	22,000,000	22,000,000
재단법인 리앤원	21,300,000	21,300,000
권순만 (보건학과 교수)	20,000,000	20,000,000
김정순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20,000,000	20,000,000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22기	20,000,000	20,000,000
변성윤 (경제학과 91입)	20,000,000	10,000,000
자산문화재단	20,000,000	
최해천 (기계공학부 교수)	20,000,000	20,000,000
간호대70년졸업동기회	19,500,000	19,500,000
서울상대항상장학회	19,250,000	19,250,000
최혁영장학회	19,217,000	19,217,000
간호대학 1980년 졸업동기	17,500,000	17,500,000
녹색환경지도자최고위과정(GELP)	17,000,000	17,000,000
홍여신 (간호대학 명예교수)	16,924,005	16,924,005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20기	15,000,000	15,000,000
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 제21기	15,000,000	15,000,000
전상훈 (외교학과 78입)	15,000,000	15,000,000
본술김중환장학재단	13,809,000	13,809,000
박주철 (치의학대학원 교수)	12,000,000	12,000,000
애니원	12,000,000	12,000,000
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동창회	12,000,000	12,000,000
간호대90년졸업생일동	11,748,000	11,748,000
미코		11,250,000
삼성복지재단	9,150,000	11,250,000
한국방정환재단	10,682,500	10,682,500
Russkiy Mir Foundation	10,243,655	10,243,655
DB김준기문화재단	10,000,000	10,000,000
가정관리학과 76학번 일동	10,000,000	10,000,000
강진호 (철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국가정책과정(ACAD) 총동창회 일동	10,000,000	10,000,000
김석호 (사회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김재창 김세영 김세정		10,000,000
김현중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10,000,000	1,000,000
동화산업장학재단		10,000,000
캠리서치코리아 유한회사	10,000,000	10,000,000
마카조아		10,000,000
박현애 (간호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삼성공장학재단	10,000,000	5,000,000
삼양이앤알	10,000,000	10,000,000
서영준 (약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서울대 SPARC 37기	10,000,000	10,000,000
세메스	10,000,000	10,000,000
식품영양학과 76학번 일동	10,000,000	10,000,000
신경수 (농공학과 84입)	10,000,000	
약대86학번 44회 동기회	10,000,000	10,000,000
연정은 (공예과 84입)		10,000,000
원익아이피에스	10,000,000	10,000,000
의류학과 86학번 일동	10,000,000	10,000,000
이석우 (동양사학과 84입)		10,000,000
이승재 (인문대학 명예교수)	10,000,000	10,000,000
이오테크닉스	10,000,000	10,000,000
일산장학회	10,000,000	10,000,000
임강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10,000,000
장원태 (철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정창주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10,000,000	5,000,000
지역활성화센터	10,000,000	10,000,000
차상석 (한일사료 부회장)	10,000,000	10,000,000
최스미 (간호학과 교수)	10,000,000	10,000,000
케이씨텍	10,000,000	10,000,000
티에이치피		10,000,000
한규환 (기계공학과 68입)		10,000,000
한아의료재단		10,000,000
아이디씨아시아	9,857,939	9,857,939
성남시장학회	9,490,800	9,490,800
오스텔업플란트	9,000,000	9,000,000
임동균 (사회학과 교수)	9,000,000	9,000,000
가원신도재단	8,994,000	8,994,000
법무법인 태평양	8,000,000	
세계경제최고전문과정(ASP) 제39기 동문		8,000,0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	8,000,000	8,000,000
신중계 (공과대학 명예교수)		8,000,000
이강이 (아동가족학과 교수)	7,500,000	7,500,000
서울문화사	7,000,000	7,000,000
식품영양학과 96학번 일동	7,000,000	7,000,000
이학래 (산림과학부 교수)	7,000,000	7,000,000
오뚜기함태호재단	6,884,000	6,884,000
내츄럴코어	6,000,000	6,000,000
디오	6,000,000	6,000,000
마미닥터	6,000,000	6,000,000
밀레핏	6,000,000	6,000,000
식품영양학과 86학번 일동	6,000,000	6,000,000
아베텍	6,000,000	6,000,000
이니포코리아	6,000,000	6,000,000
이레븐	6,000,000	6,000,000
최인규 (산림과학부 교수)	6,000,000	6,000,000
텍사바이오	6,000,000	6,000,000
피제이코리아	6,000,000	6,000,000
하림팻푸드	6,000,000	6,000,000
심정문화재단	5,950,000	5,950,000
최성호 (생명과학부 교수)		5,480,000
리브로	5,251,130	5,251,130
박정호 (농업생명과학대학)	5,000,000	5,150,000
가정교육과 66학번 일동	5,000,000	5,000,000
김유성 (법과대학 명예교수)	5,000,000	5,000,000
김중우 (토목공학과 80졸)	5,000,000	5,000,000
김지환 (화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김현진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5,000,000	5,000,000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AHP) 제6기	5,000,000	5,000,000
박철우 (수학과 학생의 학부모)	5,000,000	5,000,000
변영로 (제약학과 교수)	5,000,000	5,000,000
송원김영환장학재단	5,000,000	5,000,000
약학대학 소모임	5,000,000	5,000,000

암법정 (물리·천문학부 교수)		5,000,000
염영순 (가정관리학과 74입)	5,000,000	
오상철스케이	5,000,000	5,000,000
이경미 (경영학과 교수)	5,000,000	3,340,000
이근 (경제학부 교수)	5,000,000	3,007,680
이소영 (수학과 교수)	5,000,000	
이재근 (산림과학부 05입)	5,000,000	5,000,000
이철민 (경제학부 교수)	5,000,000	
조홍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000,000	5,000,000
정상민 (임산공학과 96입)	5,000,000	5,000,000
진코텍	5,000,000	5,000,000
최용조	5,000,000	
한맥테크산업	5,000,000	5,000,000
해연영진장학회		5,000,000
한무영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4,989,600	4,989,600
심택희진식장학재단	4,884,000	4,884,000
김용권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500,000
장구 (수학과 교수)	4,300,000	4,300,000
고은장학재단	4,000,000	4,000,000
김남균 (무기재료공학과 80입)		4,000,000
류근관 (경제학부 교수)	4,000,000	4,000,000
박민수 (동양사학과 98입)	4,000,000	4,000,000
여환영 (산림과학부 교수)	4,000,000	4,000,000
한성티앤아이	4,000,000	4,000,000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		4,000,000
선재갤러리	3,943,940	3,943,940
김영용 (간호학과 66입)		3,464,122
김원호 (약학과 63입)	3,346,911	3,346,911
임종우 (화학부 교수)	3,300,000	3,300,000
가정관리학과 86학번 일동	3,100,000	3,100,000
이봉진 (제약학과 교수)		3,010,000
김미향 (중앙도서관)	3,000,000	3,000,000
김청택 (심리학과 교수)	3,000,000	3,000,000
뉴솔루션	3,000,000	3,000,000
마프모토 케이고 (언어교육원 09입)	3,000,000	3,000,000
윤상철 (물리·천문학부 교수)	3,000,000	3,000,000
이규철 (자연과학대학 명예교수)		3,000,000
이상대 (환경계획학과 87입)	3,000,000	3,000,000
이원형 (수학과와 78입)	3,000,000	3,000,000
정산장학재단	3,000,000	3,000,000
홍계수 마리아 할머니 (법학과 72입 주경숙 동문의 가족)		3,000,000
KT그룹희망나눔재단	2,998,000	2,998,000
한국암반공학회	2,583,300	2,583,300
고화장학회	2,500,000	2,500,000
남애장학재단	2,500,000	2,500,000
박제성 (조소과 교수)	2,500,000	2,500,000
이장기 (제약학과 80입)	2,500,000	2,500,000
이종근 (조소과 교수)	2,500,000	2,500,000
이준호 (자연과학대학장)	2,500,000	2,500,000
호원정 (생리학교실 교수)		2,500,000
호원순 (박관서의 상속인)		2,500,000
이찬진 (법학과 83입)		2,400,000
강건욱 (약학과 교수)		2,100,000
남좌민 (화학부 교수)	2,025,000	2,025,000
금샘문화재단	2,000,000	2,000,000
김건희 (컴퓨터공학부 교수)	2,000,000	2,000,000
법무법인 세한	2,000,000	2,000,000
선임장학재단	2,000,000	2,000,000
오정권 (농림생물자원학부 교수)	2,000,000	2,000,000
윤정은누리약국	2,000,000	2,000,000
원진금융		2,000,000
이형호 (화학부 교수)	2,000,000	2,000,000
한국지하수지열협회	2,000,000	2,000,000
한불문화재단	2,000,000	2,000,000
황익주 (인류학과 교수)	2,000,000	2,000,000
영풍문화재단	1,800,000	1,800,000
이대건 (경영학과 03입)	1,570,000	1,780,000
일주학술문화재단	1,694,000	1,694,000
류재명 (지리교육과 교수)	1,600,000	1,600,000
KRX국민행복재단	1,500,000	1,500,000
김기원 (AIP.최고산업전략과정 38기)		1,500,000
김대용 (수학과 교수)		1,500,000
류판동 (수학과 교수)		1,500,000

박미혜 (성악과 교수)		1,500,000
박성훈 (기계공학과 58입)		1,500,000
법무법인 피터앤김	1,500,000	
속초메디칼약국		1,500,000
이기영 (보건대학원장)		1,500,000
이재승 (환경조경학과 교수)		1,500,000
재단법인 선현	1,500,000	1,500,000
정윤찬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500,000
홍산장학재단	1,500,000	1,500,000
에이드 동물병원	1,250,000	1,250,000
나영일 황현자 (체육교육과 교수)		1,200,000
유홍준 (간호학과 55입)		1,154,207
원성호 이하나 (보건학과 교수)		1,150,000
탁성희 (간호학과 교수)		1,150,000
신은주 (식품영양학과 86입)		1,060,000
정종기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060,000	1,030,000
신숙희 (간호학과 70졸)		1,030,000
윤원익 (학생지원과)	1,000,000	1,030,000
공석돈 (경제학부 학생의 학부모)	1,000,000	1,000,000
곽효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1,000,000	1,000,000
권규돈 (중어중문학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	
권영상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권재철 (중앙도서관)	1,000,000	60,000
김근래 (선명기업 대표)	1,000,000	1,000,000
김성경 (융합과학기술대학원 12입)	1,000,000	1,000,000
김성아 (수학교육과 05입)	1,000,000	1,000,000
남홍기 (토목공학과 74입)		1,000,000
노엽문화재단	1,000,000	1,000,000
대한소재	1,000,000	1,000,000
박숙희 (중앙도서관)	1,000,000	1,000,000
박유경 (경영학과 12입)	1,000,000	1,000,000
법무법인 광장	1,000,000	1,000,000
법무법인 세종	1,000,000	1,000,000
법무법인 케이씨엘	1,000,000	1,000,000
법무법인 화우	1,000,000	1,000,000
서동일 (체육교육과 04입)	1,000,000	1,000,000
성정열 (경제학부 01입)	1,000,000	1,000,000
아동가족학과 96학번 일동	1,000,000	1,000,000
안광석 (생명과학부 교수)	1,000,000	1,000,000
양영대 (제약학과 학생의 학부모)	1,000,000	1,000,000
유박영 (AWASB.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 과정 1기)		1,000,000
유향란 (국어교육과 78입)	1,000,000	1,000,000
이정환 (환경관리전공 10입)	1,000,000	1,000,000
장혁기 (체육교육과 95입)	1,000,000	1,000,000
전현수 (물리·천문학부 교수)		1,000,000
정석규 (임산공학과 80입)		1,000,000
최대혁 (체육교육과 81입)	1,000,000	1,000,000
최준희 (환경조경학과 01입)	1,000,000	1,000,000
케논스사운드	1,000,000	1,000,000
한국어학사협회	1,000,000	1,000,000
한병우 (약학과 교수)		1,000,000
허길행 (농경제학과 72졸)	1,000,000	1,000,000
홍관석 (치의학과 89입)	1,000,000	1,000,000
홍문기 (토목공학과 80입)	1,000,000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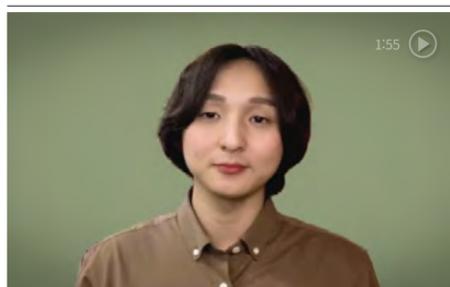
미주재단	단위: USD	
이홍표 (의과대학 58입)	200,000	100,000
조두		

후원자와 장학생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후원자 예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후원자와 장학생의 대면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만남을 대신하여 수혜 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감사영상과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장 학생 감사 영상



“ 후원자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흘러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장 학생 감사 편지



“ 생활비를 벌기 위한 노력 대신 꿈에 더 다가가는 노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예우팀

02-871-1620 | snuf@snu.ac.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SNU HONOR CLUB 예우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 쌓인 하얀 아름다움

눈 내린 캠퍼스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스누오피셜에서
찾아보세요. 흰옷 입은
자하 선사와 새하얀
눈길에 찍힌 누군가의
발자국까지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snu_official



언제나 당신 곁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더 가깝게

- 대표 홈페이지: snu.ac.kr
-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NationalUniversity
- 인스타그램: @snu.official
- 유튜브: youtube.com/SeoulNationalUniversity
- 스누새편지: bird.snu.ac.kr
- SNU NOW 온라인 뉴스룸: now.snu.ac.kr

소통매거진 <서울대사람들>은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호는 서울대학교 대표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매거진 구독, 이번 호에 대한 의견, 신고 싶은 소식을 소통팀에게 알려주세요.
후기와 좋은 소식을 보내주신 분을 선정해 서울대학교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sotongteam@snu.ac.kr